



[투자전략센터] 2016. 4. 25

SAMSUNG DAILY

- 결론을 내는 전략
 마이너스 금리, 어디만큼 왔나
- KOREA 30 – (신규)코스맥스
- CHINA 10
- 글로벌 ETF
- 기업실적 발표일정
- 수급 빅매치
- Market Indicators
- 증시 캘린더

삼성증권

SAMSUNG

박성현

sunghyun73.park@samsung.com
02 2020 7041

● 결론을 내는 戰략 No.13

마이너스 금리, 어디만큼 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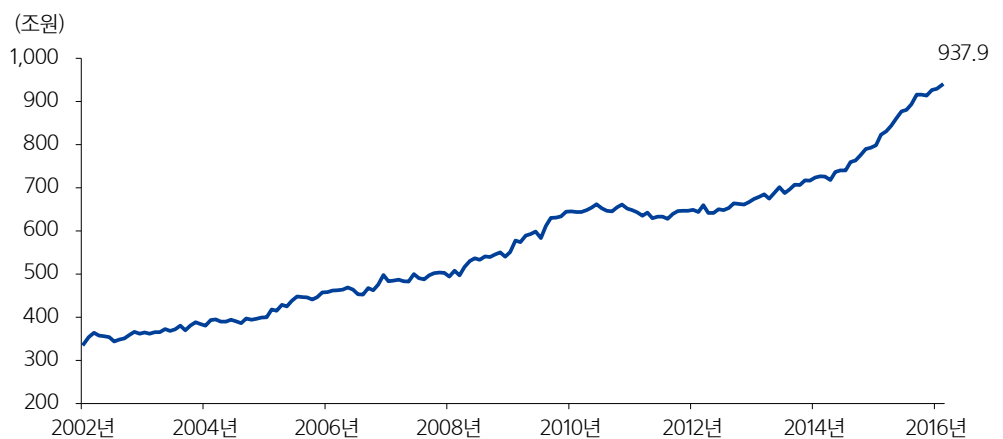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이 최근 통화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의 이해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이번 자료를 통해 동 정책의 의미를 짚어보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1. 늪지 않는 현금, 그리고 돈맥경화

현금은 다른 재화에 비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진다. 하나는 세월이 지나도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가치가 보존된다는 것이다(가치 저장의 기능). 또 다른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 다른 재화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교환 매개의 기능). 우리는 이런 장점을 가진 현금을 은행에 예금의 형태로 맡긴 후 이자를 받을 수 있다(유동성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대가).

'늪지 않는' 현금의 장점은 작금의 불확실성 증대의 시대, 디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그 가치가 커진다. 예금을 통해 가치를 온전히 보존해 둬으로써, 재화를 가질 때 생길 수 있는 가치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수요 때문에 현금과 예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 부동산자금 규모 천 조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그림 1 참조). 우리가 '돈맥경화'라고 부르는 시중 자금의 예금화 현상은 바로 현금과 예금이 가지는 '가치 저장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의 단기 부동산자금 규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2. Aging Money: 마이너스 금리를 매겨 돈도 늙게 만든다

하지만 예금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강력한 상대'를 시장에 끌어들이게 된다. 바로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는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다. 통상 물가 하락 압력이 커져 국민들이 예금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커지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이에 대응한다. 그러나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중앙은행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게 되었다. 바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하 NIRP)'이다.

2009년 스웨덴 처음 시행한 이후, 금년 일본과 헝가리가 NIRP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유로존을 포함한 총 6개 권역이 동 정책을 쓰고 있다. 이들의 GDP를 합하면 약 22조달러로,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점유한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정책의 범위와 규모가 훨씬 크다.

표 1. NIRP 채택 국가 현황

구분	 덴마크	 유로존(ECB)	 스위스	 스웨덴	 일본	 헝가리
도입시기	'12.7 월	'14.6 월	'14.12 월	'15.2 월	'16.1 월	16.3 월
적용대상	일부 예치금리	예치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	일부 예치금리	예치금리
현재금리	-0.65%	-0.40%	-1.25%~-0.25%	-0.50%	-0.10%	-0.05%
GDP 규모 (조 달러)	0.30	16.22	0.67	0.50	4.12	0.12

자료: KICF, 삼성증권

NIRP의 핵심은 화폐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가치 저장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과 이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1900년대 초 독일의 경제학자 실비오 가젤(Silvio Gesell)은 "화폐도 다른 재화와 같이 감가상각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지 않고 실물로 교환하게 되어,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돈도 늙게 해야 한다(Aging Money)'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공포가 여전한던 2009년, 미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는 "법정화폐의 10분의 1을 정기적으로 상각시키면, 총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요지의 기고문을 뉴욕타임즈지에 실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 10%에 달하는 NIRP의 도입을 주장한 셈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을 훼손시킴으로써 '거래 기능'에 충실하게 하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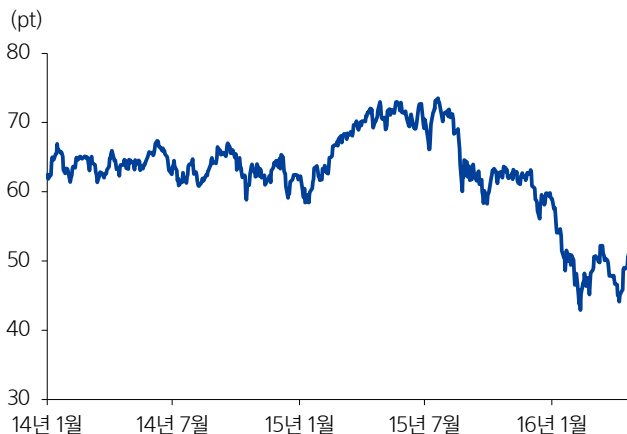


자료: Google Image, 삼성증권

3. 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부각되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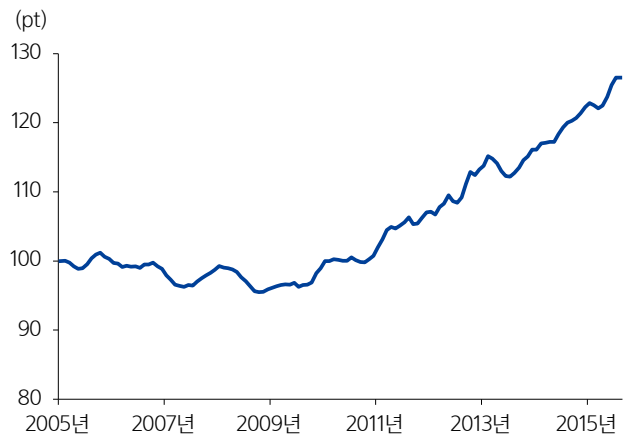
NIRP는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지적했듯이, 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부각된 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권 부담과 주가의 폭락이다. [표 1]에서 보듯이, 현재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준금리가 아닌 예치금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아오던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정책 시행 후 유럽과 일본의 주요 은행주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유럽 은행주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4. 독일의 주택가격지수



자료: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움직임도 있다. 예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자,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택'을 선택한 것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주택 가격은 제도 도입 후 무려 60% 급등했고, 독일의 주택가격지수도 작년에만 5% 이상 상승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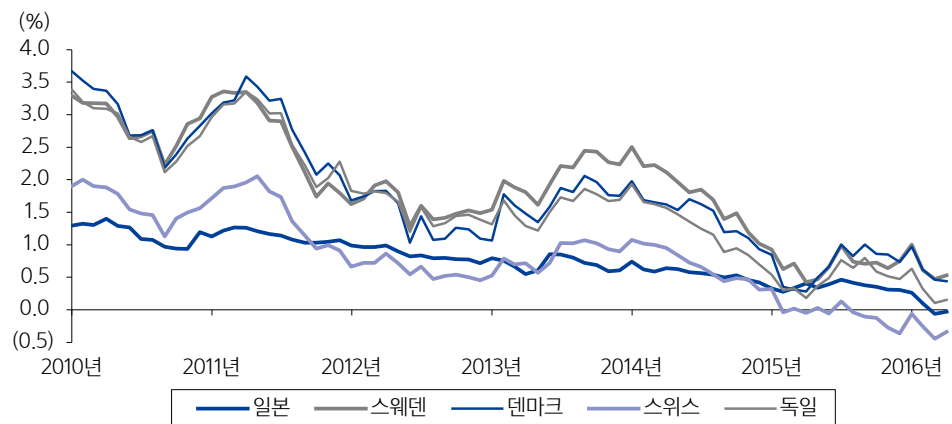
4. 오히려 NIRP 도입은 확대되는 추세

은행권의 부담, 일부 자산 버블 가능성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NIRP는 오히려 확대되려는 추세다. 금년 3월 헝가리의 정책 시행은 NIRP의 범위가 신흥국으로 확산된 사례이며, 주변국인 영국, 노르웨이, 체코 등도 동 정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미국조차, 예치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검토했을 정도다.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수 년 전 유럽의 위기를 불러왔던 국가부채 문제는 재정정책의 여지를 급격히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사실상 '통화정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지하다시피 정책금리도 너무 낮고 양적완화의 기술적 문제도 큰 상황이라 NIRP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정책 대안이 부재한 형편이다.

무엇보다 NIRP는 예금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지만, '채무자'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이다. 특히 국가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NIRP를 채택한 국가들 중 스위스와 일본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은 잠잠한 편이지만 주요국들이 자국 통화를 절하하기 위한 경쟁에 재돌입할 경우, NIRP를 강화하거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NIRP 주요국들의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 예금자들에 대한 압박이 심화된다: 세 가지 시사점과 전략

우리나라 또한 최근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NIRP에 대한 연구나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아직 정책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아직 '남의 이야기'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NIRP로 대변되는 작금의 통화정책이 정확히 '예금자'들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던 다른 정책을 쓰든, 큰 방향은 '현금과 예금을 쥐고 있는 주체들이 지닌 돈을 실물로 교환하게끔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압박(?)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될 것이다.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은 NIRP로 대변되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 저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재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과 은이 금년 들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NIRP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금속은 종이화폐(또는 부채화폐)의 도입 전에 수 천 년간 전세계에 걸쳐 가치 저장과 교환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NIRP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현할 수 있는 노이즈에 대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은행권 불안과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예금자들 중 노령층, 연금 수령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바,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면서 정치 지도가 급변하게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독일의 '대안의 정당'의 약진,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강세가 상기 민심의 표현이라고 본다.

셋째, 일부 자산의 버블 출현 가능성이다. NIRP를 채택한 서유럽 주요국들의 주택 가격 급등이 좋은 예인데, 정책 압박에 의해 예금에서 탈출한 자금이 부동산이나 원자재, 그리고 물가채와 같은 인플레이션 헷지 상품, 고금리 상품 등에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펀더멘털 대비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차곡차곡 저축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다.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때다.

투자정보팀

daeyong.yang@samsung.com
02 2020 7705

◀ KOREA 30 편·출입 코멘트

신규편입: 코스맥스(192820)

Stock Data

현재주가	144,000원	52주 최고/최저	231,000 / 120,500원
시가총액	12,959억원	수익률 (1M/3M/12M, %)	+10.8/-20.0/-8.6
발행주식수 (보통주)	9,000천주	외국인 지분율 (%)	17.08%

주요 주주 현황

코스맥스비티아이(외 3인)	25.93%	국민연금공단	9.85%
----------------	--------	--------	-------

주요 투자포인트

1) 신규 브랜드 사업자 · 중소형업체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위생허가 취득 이후 중소형브랜드 업체의 중국진출 가속화. 더불어 신규 브랜드 사업자 시장 진입에 따른 수혜로 국내 고객사 수주는 20%대 성장을 지속 중. 또한 전년말 글로벌 고객사 추가에 따라 수출 실적 고성장세도 이어질 전망

2) 중 · 미 해외 법인 영업 본격화로 장기 성장성 전략 보유

중국법인은 올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고객 다변화 등의 전략 변화로 리스크 해소와 수익성 회복을 기대. 미국법인은 올해 영업 본격화에 따라 신규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

주가 흐름 (Trading Band: 130,000원 ~ 160,000원)



자료: 삼성증권

Key Table

(억원)	2015	YOY (%)	2016(E)	YOY (%)
매출액	5,333	59.7	6,977	30.8
영업이익	359	47.6	529	47.3
순이익	189	19.9	337	78.3
P/E (배)	77.9		34.8	
P/B (배)	16.9		9.7	
ROE (%)	23.8		31.2	

자료: Fnguide

※ KOREA 30 성장형 포트폴리오 내 엔씨소프트를 편입을 제외하고 코스맥스를 신규 편입합니다. 기존 추천종목인 엔씨소프트는 종목교체 차원에서 편입을 제외합니다.

투자정보팀

daeyong.yang@samsung.com
02 2020 7705

KOREA 30 포트폴리오

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YTD	설정이후(2015. 1. 2 ~ 2016. 4. 22)
KOREA30	+0.50	+3.54	+0.41	-2.02	+8.85
KOSPI	+0.04	+1.49	+7.24	+2.76	+5.22
초과수익률	+0.46	+2.06	-6.83	-4.78	+3.63

1. 성장형 포트폴리오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NEW 코스맥스 (192820)	144,000	- 신규 브랜드 사업자·중소형업체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 중·미 해외 법인 영업 본격화로 장기 성장성 전략 보유	2016-04-25	(신규)
금호석유* (011780)	72,700	- 자동차 주행거리 증가와 천연고무 가격 상승으로 고무 시황 개선 기대 - 재고처리에 따른 원가율 개선 및 열병합 발전소 준공으로 수익성 개선	2016-04-19	(+2.8%)
LG하우시스* (108670)	143,000	- 지난 2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으로 2017년까지 실적 개선세 기대 - 주택 노후화와 월세 비중 확대로 B2C시장에서의 리모델링 수요 증가	2016-04-05	(+2.5%)
아모레G (002790)	166,000	- 아모레퍼시픽 실적 호조 및 에뛰드 구조조정 마무리로 턴어라운드 기대 - 판매채널mix 변화로 구조적 성장을 보이는 이니스프리의 수익성 증대	2016-03-29	(+9.9%)
이노션* (214320)	76,700	-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 및 주요 볼륨모델 출시에 따른 이익 증가 예상 -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제외로 그룹사 대행 물량 회복 전망	2016-02-29	(-7.6%)
메디톡스 (086900)	441,000	- 글로벌 보톡스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 가시화 - 이노톡스 3상 개시 시 250억원 마일스톤 수취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2016-02-02	(-16.4%)
LG화학* (051910)	308,000	- 16년 중국/유럽/미국 자동차업체향 매출 본격화로 2차전지 흑자전망 - 세계 1위 ESS업체 AES社와 공급계약 체결로 배터리 경쟁력 강화	2016-01-04	(-6.2%)
LIG넥스원 (079550)	93,300	-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에 따른 중장기 성장 전망 - 주요 제품의 양산단계 진입으로 본격적인 이익성장기 예상	2015-11-23	(-15.9%)
CJ CGV (079160)	109,000	- 중국·베트남 영화산업 고성장 수혜로 해외법인 이익 정상화 전망 - 국내 및 해외 신규 출점 사이클 안정화로 중장기 수익성 개선세 기대	2015-08-07	(-11.4%)
LG생활건강 (051900)	1,008,000	- 면세점 채널을 통한 프레스티지 화장품 매출 급증으로 수익성 개선 - 프레스티지 브랜드 '숨' 올해 중국 런칭으로 중국 사업 모멘텀 부각	2015-01-28	(+61.0%)

아모레퍼시픽 (090430)	408,000	- 중국 내 주요 브랜드 추가 출점과 유통 채널 다각화로 매출 성장 기대 - 고마진 면세점 채널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화장품 사업 이익성장 지속	2015-01-02	(+83.8%)
--------------------	---------	---	------------	----------

2. 밸류형 포트폴리오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하나금융지주 (086790)	26,000	-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 순이자마진 안정화, 위험가중자산 관리로 인한 보통주 자본 비율 개선	2016-04-15	(+4.4%)
효성* (004800)	133,500	- 작년 3분기 증설한 스판덱스 부문의 업황 호조로 이익성장 기대 - 타이어코드의 우호적 스프레드와 중공업 부문의 물량증가로 실적 개선	2016-04-15	(-6.3%)
한화케미칼* (009830)	25,950	- 역내 타이트한 올레핀 수급으로 PE/PVC 등 주요제품 마진율 개선 - 지분법 NCC업체(여천NCC/한화종합화학) 실적개선·태양광 실적 안정화	2016-04-15	(-1.5%)
컴투스 (078340)	128,900	- 서머너즈워의 라이프사이클 확대 및 신작 출시 모멘텀 보유 - 시장 평균(14.4배)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2016-04-12	(+3.3%)
동서* (026960)	32,950	- 커피원두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 - 우수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	2016-04-11	(-2.7%)
LS산전 (010120)	51,800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정책 핵심인 ESS 활성화 방안 수혜 - 한전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시스템, 자동화 등의 매출 증가 전망	2016-04-08	(+11.6%)
POSCO (005490)	249,000	- 글로벌 철강 산업 구조조정 사이클진입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 - 안정적인 영업현금 흐름에 기반한 고배당 메리트 부각	2016-04-05	(+13.7%)
SK텔레콤 (017670)	201,500	- 전년 배당금 10,000원 기준 현재 +4.6%수준의 고배당수익률 메리트 - CJ헬로비전 인수 시 유무선 상품 경쟁력 확대 기대	2016-03-17	(-7.6%)
KB금융 (105560)	35,900	- 압도적으로 높은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한 주주환원정책 확대 - 향후 KB손보, KB캐피탈 등의 비은행 계열사와 시너지 강화 기대	2016-02-18	(+14.7%)
현대모비스 (012330)	251,000	- 고사양 차종 증가에 따른 핵심부품 매출 성장 전망 - 현대차그룹의 신규 공장 가동 수혜 및 친환경차 핵심부품 사업 주도	2016-02-18	(-4.2%)
LG전자 (066570)	62,000	- 2016년 상반기 프리미엄 가전·OLED TV 중심 실적 개선 전망 - 전장부품 사업 본격화와 사물인터넷 확산에 따른 새로운 성장 기회	2016-01-15	(+7.1%)
현대차 (005380)	151,000	- 현 주가 수준은 5년 기준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 저평가 매력 - 韓·中 자동차 수요 부양책 발표와 VW 대규모 리콜 반사익 기대	2015-01-02	(-10.7%)

3. 스몰캡 포트폴리오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이녹스* (088390)	13,200	- OLED TV용 봉지 소재 및 무선충전 CCL 등 신제품 증가로 수익성 개선 - 작년 인수한 자회사 알톤스포츠의 구조조정으로 연결실적 개선 기대	2016-04-08	(-5.4%)
종근당바이오* (063160)	27,200	- 고부가 원료의약품 판매 비중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세 부각 - 프로바이오틱 원료의약품 신사업 추진으로 고마진 제품 라인업 확대	2016-04-07	(-6.2%)
조광페인트* (004910)	14,350	- 국내 주택분양시장 성장에 따른 목공용 페인트 매출 성장 전망 - 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마진 확대에 이익률 개선 기대	2016-03-31	(+6.3%)
AP시스템* (054620)	19,050	- ELA-LLO 등 OLED 관련 레이저 핵심장비 경쟁력 보유 - 국내 디스플레이업체와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 수혜 전망	2016-03-22	(-2.6%)
한독* (221260)	40,250	- 시가총액 대비 한독의 제넥신 지분과 부동산 가치 감안시 저평가 매력 - 자회사 제넥신의 지속형 성장호르몬 등 신약 모멘텀 보유	2016-03-10	(+22.3%)
이오테크닉스* (039030)	114,900	- 플렉서블 OLED 패널용 폴리이미드 레이저 커팅 장비 수주 확대 전망 - TSMC·대만 패키징 업체 반도체 통합칩 레이저 드릴링 장비 공급기대	2015-12-23	(+1.6%)
비아트론* (141000)	28,700	- 글로벌·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고객사 보유로 OLED 투자사이클 수혜 - 하반기 이후 플렉서블 OLED 용 PIC장비 매출 확대에 수익성 개선 예상	2015-11-13	(+73.9%)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당사는 고객의 투자위험관리를 위하여 고객님의 KOREA30 종목에 투자하실 경우 한 종목 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세 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하여 고변동성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China Center

china.center@samsung.com
02 2020 7032

CHINA 10 포트폴리오

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YTD	설정이후(2015. 1. 2 ~ 2016. 4.22)
CHINA10	-6.13%	-1.81%	+3.16%	-18.13%	+6.46%

종목 (티커)	주가 (CNY)	투자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항천정보 (600271)	53.58	- 중국항천과공그룹의 자회사, 부가가치세 위조방지시스템 독점기업 - 화자소프트웨어 및 항천금순 인수로 빅데이터 및 IoT 사업 확장	2016-04-18	(-10.7%)
구주통 (600998)	16.98	- 중국 내 민영 1위 의약품 유통업체. 의약품 B2C 시장 성장의 수혜 - JD.com과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하며 선도적 지위	2016-04-11	(+0.7%)
상해백연그룹 (600827)	13.44	- 상해지역의 백화점·슈퍼마켓·쇼핑몰 등을 보유한 종합 소매업체 - 올해 6월, 상해 디즈니랜드 개장에 따른 수혜 전망	2016-04-07	(-6.7%)
화태증권 (601688)	18.21	- 강소성 정부 산하 국영기업으로 중국 브로커리지 1위 증권사 - 증시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거래량, 신용잔고 증가 수혜	2016-03-18	(+12.9%)
성도봉박사테크놀로지 (600804)	19.05	- 중국 4위, 민간기업 기준으로 1위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 정부의 브로드밴드망 확대 정책 수혜 및 빅데이터 사업 기대	2016-03-10	(-0.7%)
중국거석 (600176)	21.07	- 중국 최대 유리섬유 제조업체.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수혜 - 유리섬유 산업 호황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성장	2016-03-08	(+5.8%)
중국중철 (601390)	7.68	-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등 인프라 확대 정책의 수혜 - 양회 전후 정책관련주 주도의 투자심리 개선 전망	2016-03-03	(-0.9%)
용기실리콘소재 (601012)	12.20	- 단결정 웨이퍼생산 글로벌 1위 기업, 단결정 시장의 25%를 점유 - 정부의 신에너지 발전 사업과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	2016-02-17	(-26.1%)
화하행복부동산 (600340)	23.54	- 개발중인 면적의 80%가 징진지 지역, '징진지 일체화'정책 수혜 - 북경 주요 행정기관의 통저우 지역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 수혜	2016-01-04	(-23.5%)
국전남서테크놀로지 (600406)	13.85	- 국가전력망 산하 유일한 상장사로, 중국 전력망자동화 M/S 30% - 중국 스마트그리드 시장확대 및 전기차 충전소 건설의 수혜	2015-09-22	(-10.2%)

참고: China 10 종목은 후강통 주식으로 구성.

※ 당사는 고객의 투자위험관리를 위하여 中國주식에 투자하실 경우 자산의 10% 이내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세 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하여 고변동성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해외주식팀

e.trading@samsung.com
02 2020 7306

글로벌 ETF

종목 (티커)	주가 (USD)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EEM)	34.75	- 글로벌 이머징 시장 주요종목에 투자하는 ETF - 투자 대상 국가는 중국(19%), 한국(15%), 대만(12%), 인도(8%) 등 - 주요 보유종목은 TSMC, 삼성전자, 텐센트홀딩스, 차이나모바일, 나스퍼스 등 -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이머징 시장 강세 전망	4/18	(+0.1%)
SPDR Gold Trust (GLD)	119.42	- 실물 골드바(금괴)를 보유하는 대표적 금 투자 ETF - 금 선물에 투자하는 일반 금 투자 ETF들과 차별화되며, 보유하고 있는 골드바는 수탁사 창고에 보관 - 중국, 인도의 장신구용 금 수요 회복 및 금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강세 기대	4/8	(+0.7%)
Deutsche X-trackers CSI 300 China (ASHR)	23.77	- 중국 CSI 300지수를 벤치마크로 추종하여 운용 - 주요 보유종목은 중국평안보험, 중국민생은행, 흥업은행, 초상은행, 교통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만과, 중신증권, 농업은행, 귀주모태주 등 - 양회 이후 중국시장 정책 모멘텀 및 저가 매력에 따른 매수세 유입 기대	3/21	(-3.7%)
iShares Core Aggressive Allocation (AOA)	46.08	- 공격형 자산배분 ETF로 80%의 자산을 주식, 20%를 채권에 투자 - 재간접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블랙록이 운용하는 주식형 및 채권형 ETF 편입 - 국가별 비중은 미국(54%), 일본(9%), 영국(6%), 프랑스(3%) 등 - 원자재 시장 안정 및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로 글로벌 자산시장 강세 기대	3/21	(+2.0%)
Robo Global Robotics and Automation (ROBO)	25.40	- 글로벌 주요 로봇 및 산업 자동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 국가별 비중은 미국(39%), 일본(24%), 독일(9%), 대만(8%), 스위스(4%) 등 - 주요 보유종목은 하이원 테크놀로지(대만), 코그넥스(미국), 링컨 일렉트릭(미국), 쿠카(독일), 파로 테크놀로지(미국) 등	3/21	(+4.0%)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해외주식팀

e.trading@samsung.com
02 2020 7306

종목 (티커)	주가 (USD)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편입일	수익률
Energy Select Sector SPDR (XLE)	66.08	- 미국 에너지 섹터 주요종목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 주요 보유종목은 엑슨모빌, 셰브론, 쉘버거, EOG 리소시스 등 - 미국 에너지 기업 실적 안정화 및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 주요 산유국 감산 합의 가능성에 따른 유가 상승 및 정유기업 이익 개선 기대	2/5	(+15.4%)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XLY)	79.62	- 미국 주요 경기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 - 아마존닷컴, 홈데포, 월트디즈니, 컴캐스트, 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등 경기소비재 업종 전반 주요종목을 보유 - 미국 고용안정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소비재 섹터 강세 전망	1/4	(+1.9%)
PowerShares QQQ Nasdaq 100 (QQQ)	110.65	- 미국 나스닥 대표 100종목에 투자하는 ETF - 애플, 알파벳을 포함한 IT 기업과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셀진 등 바이오테크 기업, 디즈니, 컴캐스트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모두 포함 - 유동성 및 펀드총자산 규모에서 미국 투자 대표 ETF 중 하나	1/4	(-1.1%)
First Trust Dow Jones Internet Index (FDN)	70.08	- 미국 주요 인터넷 업체에 투자하는 ETF -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세일즈포스닷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클라우드컴퓨팅 업체 등을 보유 - 미디어/콘텐츠,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 성장 기대	1/4	(-6.1%)
PowerShares DB Commodity Index (DBC)	14.12	-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14개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알루미늄, 구리, 대두, 설탕, 밀 등을 보유 - 글로벌 원자재 낙폭 과대에 따른 Bottom-fishing 관점에서 접근 - 개별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원자재의 전반적 가격 상승에 베팅	1/4	(+5.7%)

참고: 상기 ETF는 모두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중
한국과 현지와의 시차에 따라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기업실적 발표일정

한국 주요 기업 실적발표 일정

회사명 (십억원)	잠정실적 발표예정일	Fnguide Consensus			영업(잠정)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서울반도체	20160425	234	9	5			
LG생활건강	20160426	1,457	207	149			
SK하이닉스	20160426	3,928	629	485			
현대차	20160426	21,735	1,471	1,593			
삼성전기	20160426	1,557	77	47			
한국항공우주	20160426	782	78	57			
현대중공업	20160426	10,691	78	35			
기아차	20160427	11,688	518	624			
GS건설	20160427	2,442	39	22			
현대건설	20160427	4,136	222	132			
현대모비스	20160427	8,984	719	769			
현대위아	20160427	1,987	121	95			
현대글로비스	20160427	3,624	182	129			
LG디스플레이	20160427	6,341	-137	-145			
LG유플러스	20160427	2,738	166	93			
LG이노텍	20160427	1,373	25	11			
삼성물산	20160427	7,311	103	56			
이노션	20160427	250	21	19			
NAVER	20160428	874	212	148			
LG상사	20160428	3,469	42	22			
SK텔레콤	20160428	4,282	456	384			
삼성SDI	20160428	1,378	-43	104			
한국타이어	20160429	1,604	229	174			
KT	20160429	5,579	352	203			
기업은행	20160429	-	475	357			
하나투어	20160502	173	16	12			
OCI	20160503	698	7	103			

참고: 컨센서스는 K-IFRS 연결기준 1분기 실적으로 2016년 3월 31일 기준 / 상기 실적발표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자료: Fnguide,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misun825.ku@samsung.com
02 2020 7053

수급 빅매치

전일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POSCO	277	1	SK텔레콤	192
삼성전자	272	2	대림산업	132
삼성SDI	196	3	한샘	81
우리은행	138	4	현대제철	78
LG전자	106	5	한국전력	73
한국콜마	99	6	GS건설	68
LG유플러스	84	7	KT&G	44
아모레G	68	8	종근당	43
기아차	63	9	BGF리테일	42
코스맥스	60	10	현대차	41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로엔	17	1	셀트리온	68
크루셀텍	15	2	메디톡스	39
뉴트리바이오텍	14	3	디오	29
파트론	13	4	보성파워텍	28
지스마트글로벌	12	5	인바디	22
카카오	11	6	바이넥스	21
우리산업	11	7	위메이드	21
광림	11	8	파라다이스	19
블루콤	11	9	SK머티리얼즈	18
KH바텍	11	10	이지바이오	16

전일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KB금융	161	1	LG화학	618
KT&G	81	2	삼성전자	324
현대제철	71	3	POSCO	154
기업은행	53	4	SK이노베이션	148
하나금융지주	47	5	대림산업	120
LG넥스원	44	6	현대산업	115
동부하이텍	40	7	LG전자	92
BGF리테일	39	8	한미약품	72
한국전력	37	9	삼성물산	72
한국항공우주	35	10	효성	72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KG이니시스	47	1	셀트리온	100
컴투스	42	2	셀트리온제약	44
로엔	28	3	카카오	39
삼목에스폼	21	4	메디톡스	32
블루콤	20	5	오스템임플란트	20
인트론바이오	15	6	포스코켄텍	14
유니셈	14	7	바텍	14
서울반도체	13	8	디오	14
하림홀딩스	13	9	한솔신텍	13
고영	13	10	에스텍파마	13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

전일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주요종목

유가증권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KB금융	161	1	삼성SDI	196
기업은행	53	2	우리은행	138
롯데칠성	33	3	아모레G	68

코스닥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컴투스	42	1	크루셀텍	15
로엔	28	2	뉴트리바이오텍	14
삼목에스폼	21	3	우리산업	11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

최근 5일간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POSCO	1,206	0.9	1	SK하이닉스	840	-0.4
삼성전자	1,004	-0.5	2	KT&G	558	2.7
NAVER	485	-0.8	3	현대모비스	553	3.7
삼성SDI	480	0.5	4	SK텔레콤	437	-0.7
LG전자	341	-1.6	5	삼성전기	236	0.0
금호석유	334	9.9	6	롯데케미칼	229	-3.1
SK이노베이션	316	-2.1	7	호텔신라	196	2.6
한국전력	299	0.5	8	LG디스플레이	179	4.9
LG화학	255	-5.8	9	GS건설	173	4.3
LG유플러스	240	-3.6	10	BGF리테일	145	-0.5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카카오	167	0.3	1	완리	94	-2.5
오스템임플란트	109	2.4	2	인트론바이오	65	2.7
컴투스	81	4.4	3	CJ E&M	52	2.8
파트론	77	-1.6	4	큐리언트	48	1.5
와이지엔터테인먼트	57	9.7	5	셀트리온	45	-5.5
에스에프에이	57	2.9	6	엔터메이트	40	-34.6
이오테크닉스	54	-4.2	7	SK머티리얼즈	36	2.3
크루셀텍	51	5.0	8	메디톡스	34	-0.2
비아트론	43	6.3	9	인터파크홀딩스	34	-4.5
KH바텍	43	-4.7	10	바이넥스	32	3.3

최근 5일간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현대모비스	981	3.7	1	LG화학	1,913	-5.8
KT&G	605	2.7	2	삼성전자	774	-0.5
현대제철	529	4.0	3	SK이노베이션	687	-2.1
LG디스플레이	396	4.9	4	POSCO	650	0.9
기아차	383	2.2	5	NAVER	473	-0.8
우리은행	372	6.3	6	LG전자	440	-1.6
KB금융	356	3.5	7	한미약품	341	-1.8
신한지주	327	2.7	8	한국전력	324	0.5
현대차	312	1.7	9	S-Oil	321	-1.1
CJ CGV	304	11.0	10	대한항공	296	-3.4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KG이니시스	99	12.7	1	셀트리온	710	-5.5
CJ E&M	92	2.8	2	셀트리온제약	121	-14.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91	9.7	3	하이비전시스템	76	-10.3
인트론바이오	85	2.7	4	이오테크닉스	65	-4.2
에코프로	45	10.2	5	오스템임플란트	57	2.4
SK머티리얼즈	45	2.3	6	휴젤	54	-4.1
컴투스	42	4.4	7	에스에프에이	52	2.9
휴온스	32	5.9	8	바텍	52	-2.9
파라다이스	29	2.5	9	카카오	46	0.3
보령메디앙스	28	9.2	10	파트론	44	-1.6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Fnguide

기관/외국인 순매수 전환 종목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코스닥 시장	외국인	
	기관			기관	
		LG전자, 한미약품, 코웨이			실리콘웍스, 네오위즈게임즈, 액션스퀘어
		아모레G, CJ제일제당, 동원시스템즈			리노공업, 바이넥스, 지스마트글로벌

참고: 순매수 전환은 2일 연속 매도에서 2일 연속 매수 전환하고,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큰 종목
자료: Fnguide

Market Indicators

투자정보팀

jm56.kim@samsung.com
02 2020 7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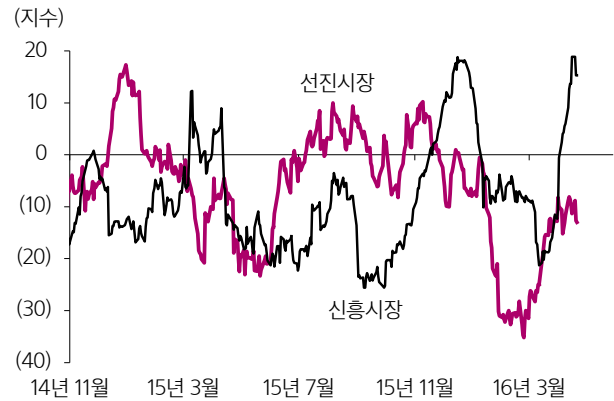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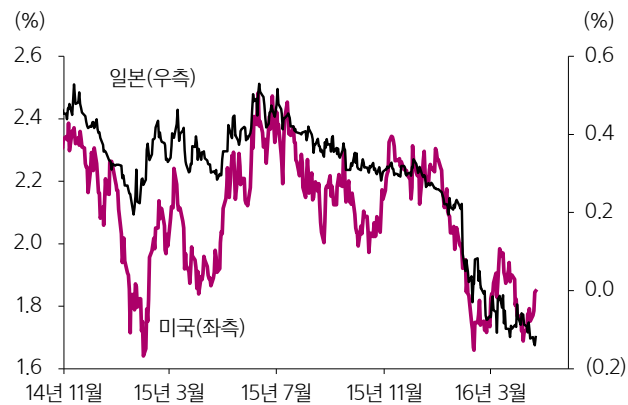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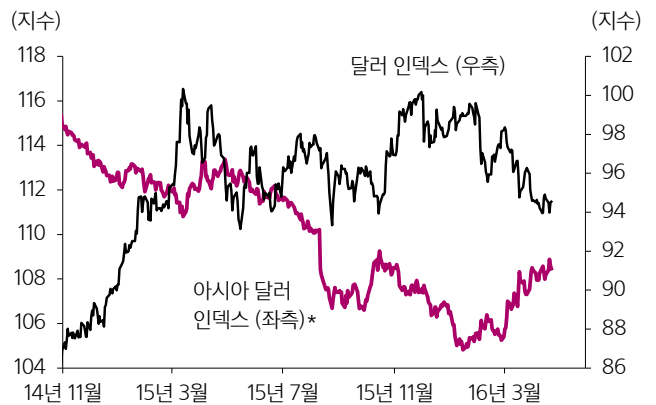
미국/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참조: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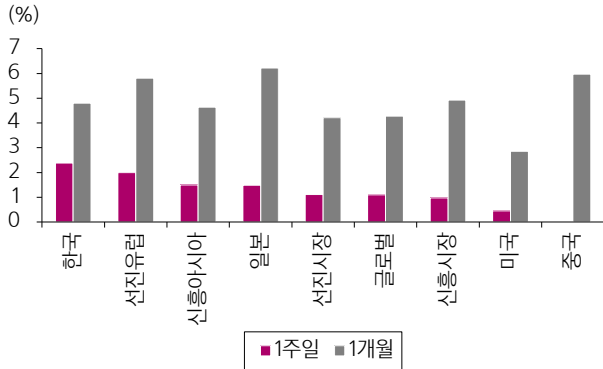


참조: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글로벌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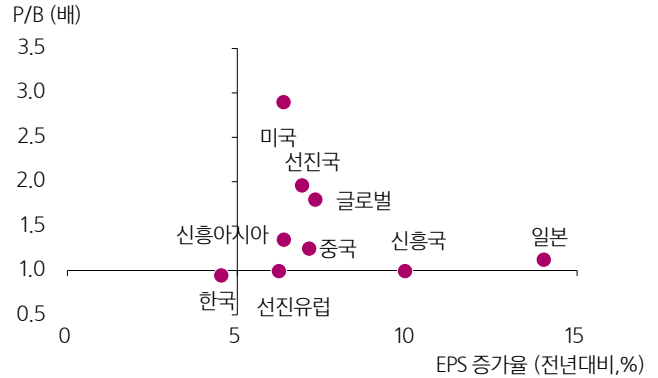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참고: 4월 14일 ~ 4월 2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지역별 12개월 선행 기준 예상 EPS 증가율 및 P/B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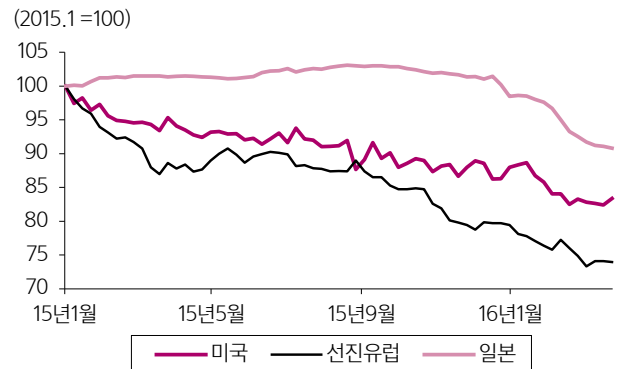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4월 14일 ~ 4월 2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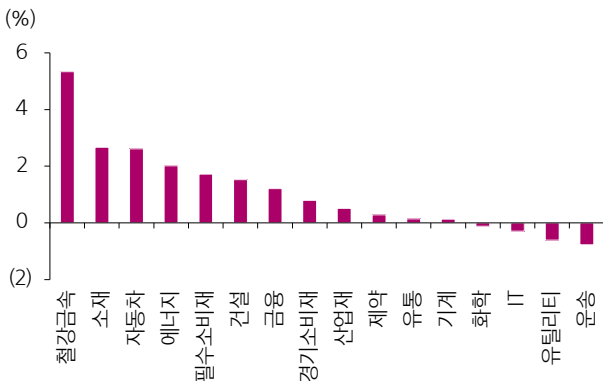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6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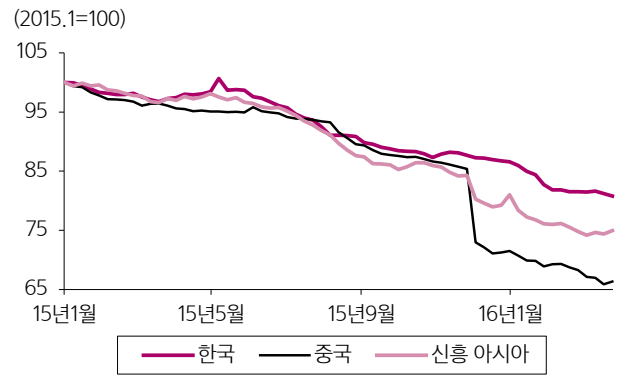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4월 14일 ~ 4월 2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6년 예상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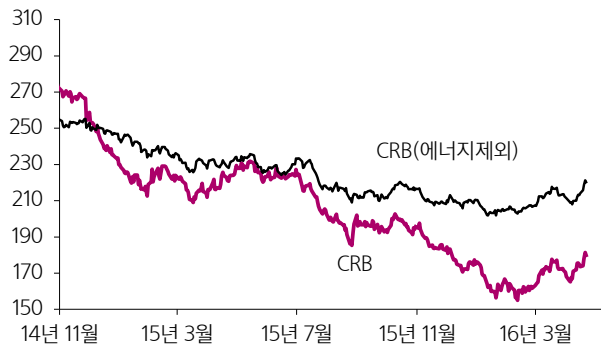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TR/Jefferies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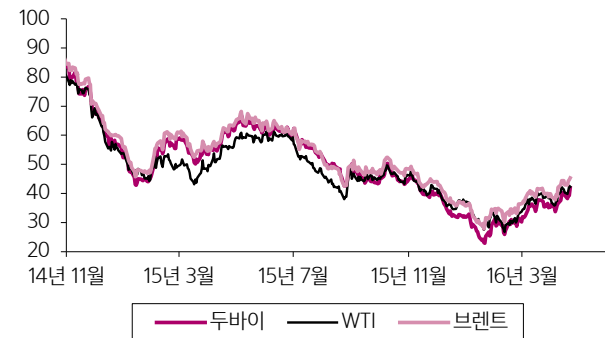
(지수)



자료: Thomson Reuters, 주: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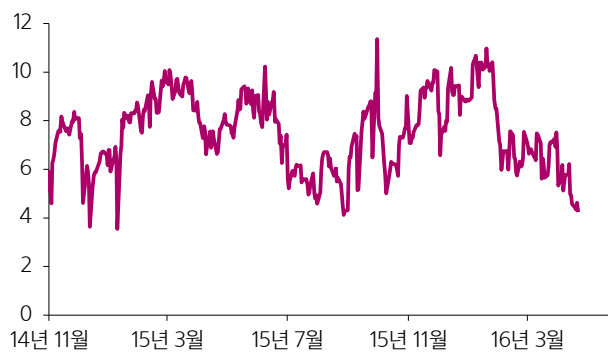
(달러/배럴)



자료: Thomson Reuters

싱가포르 정제마진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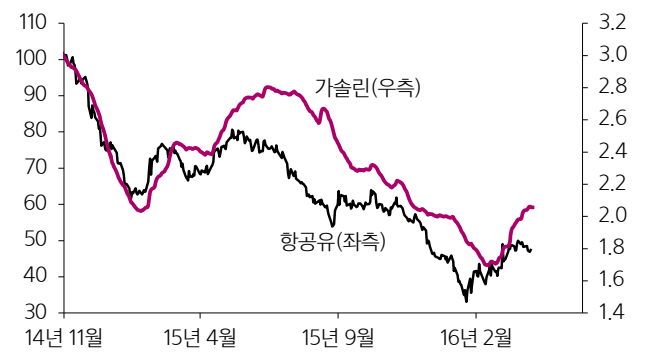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항공유 & 가솔린

(달러/배럴)

(달러/갤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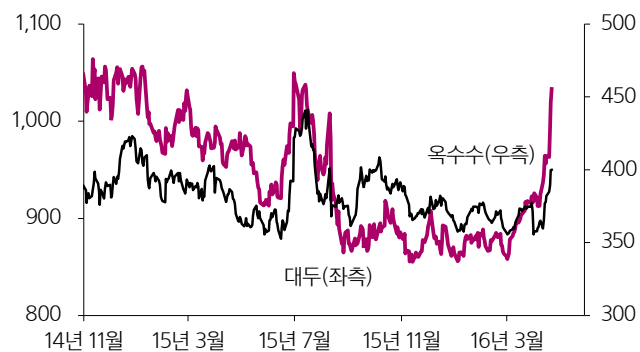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두 & 옥수수

(달러/부셸)

(달러/부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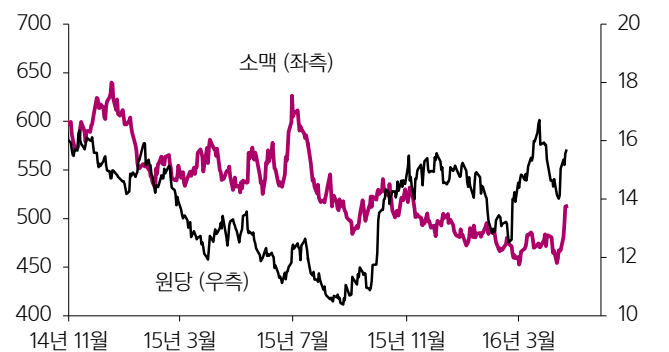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소맥 & 원당

(달러/부셸)

(달러/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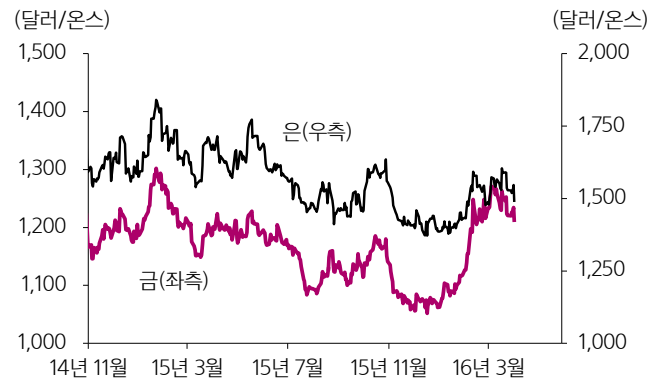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LME(비철금속)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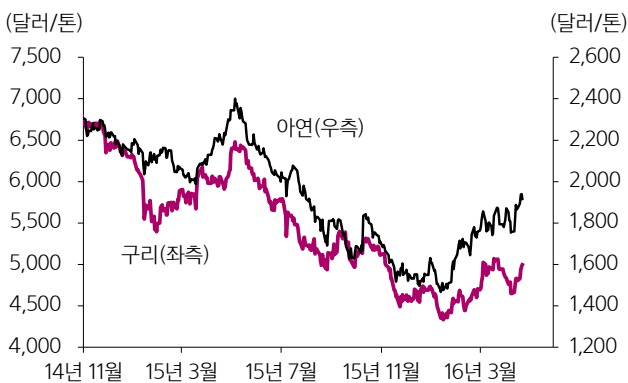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귀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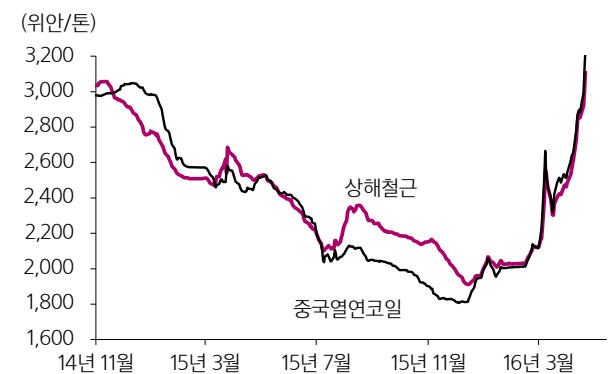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비철금속 가격



자료: Thomson Reuters

철강 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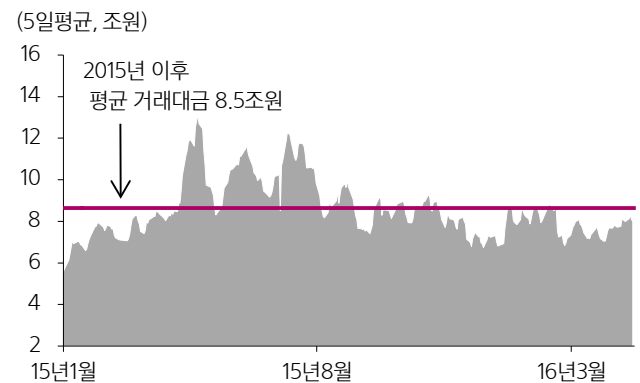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Fnguide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KRX

증시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25	26	27	28	29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천건) (3월 -/E 520/P 512) [한국] 1분기 GDP(전년대비) (1분기 -/E 2.7%/P 3.1%)	[미국] 3월 내구재주문(전월대비) (3월 -/E 1.9%/P 3.0%) 2월 케이스실러주택지수 (2월 -/E -/P 175.42) 4월 소비자대지수 (4월 -/E 95.6/P 96.2) [한국] 1분기 GDP(전년대비) (1분기 -/E 2.7%/P 3.1%)	[미국] MBA주택융자신청지수(전주대비) (4월4주 -/E -/P 1.3%) 4월 FOMC회의 (4월 -/E 0.50%/P 0.50%)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4월 -/E -/P 100) [유럽] 3월 M3통화공급(전년대비) (3월 -/E 5.0%/P 5.0%)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4월4주 -/E -/P 247) 1분기 GDP(전분기대비) (1분기 -/E 0.7%/P 1.4%) [유럽] 4월 소비자대지수 (4월 -/E -9.3/P -9.3)	[미국] 3월 개인소득(전월대비) (3월 -/E 0.3%/P 0.2%) 3월 개인소비지수(전월대비) (3월 -/E 0.2%/P 0.1%) 4월 미시건대소비자지수 (4월 -/E 90.2/P 89.7) [한국]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제조업 (5월 -/E -/P 70) 3월 광공업생산(전월대비) (3월 -/E -0.6%/P 3.3%) [유럽] 4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4월 -/E 0.1%/P -) 1분기 GDP(전년대비) (1분기 -/E 1.5%/P 1.6%) *증시휴장 - 일본
5/2	3	4	5	6
美 4월 마켓 제조업PMI 4월 ISM 제조업지수 3월 건설지출 유 4월 마켓 제조업PMI	韓 4월 소비자물가지수 中 4월 차이신 제조업PMI 유 3월 생산자물가지수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 4월 ADP취업자변동 3월 무역수지 4월 ISM비제조업지수 3월 제조업수주 3월 내구재주문 유 3월 소매판매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4월 비농업고용자수변동 4월 실업률
*증시휴장 - 홍콩, 중국 등	*증시휴장 - 일본 등	*증시휴장 - 일본 등	*증시휴장 - 한국, 일본 등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 E: 예상치, P: 직전발표치
 자료: Bloomberg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투자전략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